



이제는 실천의 호스피스입니다

강 영 우 _ 한호협 회장,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

한 호협 식구들께 인사드립니다. 지난 2005년도 정기총회(분당 만나교회)에서 만났던 분들과 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 주님 안에서 살롬을 전합니다.

지금 한국의 호스피스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. 바로 호스피스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.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일찍부터 시작한 우리 한호협의 활동은,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의 호스피스에 불을 지펴왔습니다. 이제 한국 호스피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, 우리 한호협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.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. 대정부 관계, 대사회 관계, 그리고 타 호스피스 단체와의 관계 등 할 일이 많습니다.

분명한 것은,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이 땅의 사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. 여러 이론과 번듯한 말과 홍보물로 포장한 호스피스보다는 한 번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. 혹시 외부의 영리단체가 호스피스 법제화의 과실을 탐내고 우리를 실망시키더라도,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, 차원 높은 실천의 호스피스를 해야 할 것입니다.

지난 11월 추수감사절에,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(장막절, 수장절)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. 유대인들이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하는 것은 추수할 곡식 때문이 아니라, 출애굽 시절의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입니다.(레위기 23:42-43) 나아가서 이 땅의 생은 짧은 7일 간의 임시 처소인 초막인 것입니다. 우리는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바라봅니다. 이 땅에서의 짧은 초막 생활을 감사하며, 호스피스에 더욱 헌신합니다. 감사로 무장한 우리 한호협, 실천의 호스피스 앞에는 육신의 초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,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

다시 한번 한호협 식구들께 감사와 인사를 드리며,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.

살롬....